

# 끝내준 8m 버디... 김세영 '2019 해피엔딩'

LPGA 최종전 CME 챔피언십 우승  
상금 17억6천만원...여자골프 사상 최고  
한국 선수 4번째 '10승 클럽' 가입

고진영 한국 선수 첫 전관왕  
한국 선수들 올 시즌 15승 합작

## LPGA 투어 한국(계)선수 우승 일지

지은희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스 토너먼트 (1.21)
양희영	혼다 LPGA 타이랜드 (2.24)
박성현	HSBC 월드 챔피언십 (3.3) NW 아칸소 챔피언십 (7.1) <b>2승</b>
이민지	LA 오픈 (4.29)
이정은	US 여자오픈 (6.2)
고진영	뱅크 오브 로프 파운더스컵 (3.25) ANA 인스퍼레이션 (4.8) 에비앙 챔피언십 (7.29) 캐나다 퍼시픽 여자 오픈 (8.26) <b>4승</b>
허미정	스코틀랜드오픈 (8.12) IWIT 챔피언십 (9.30) <b>2승</b>
대니엘 강	뉴욕 LPGA 상하이 (10.20)
장하나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10.27)
김세영	메디힐 챔피언십 (5.6) 마라톤 클래식 (7.15)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11.25) <b>3승</b>

연말뉴스



김세영이 25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CME그룹투어 챔피언십 4라운드 18번 홀에서 우승을 확정 짓는 버디 퍼트를 성공한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연말뉴스

김세영(26)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9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500만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김세영은 25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655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김세영은 2위 찰리 헐(잉글랜드)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여자골프 사상 가장 많은 우승 상금 150만달러(약 17억 6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올해에만 3승을 따낸 김세영은 박세리(25승), 박인비(19승), 신지애(11승)에 이어 한국 선수 네 번째로 LPGA 투어 통산 10승 고지에 올랐다.

한국 선수들은 또 이번 시즌 LPGA 투어 15승을 합작,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한 시즌 한국 선수 통산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웠다.

세계 랭킹 1위 고진영(24)은 11언더파 277타를 기록해 공동 11위로 대회를 마쳤다.

3라운드가 끝난 뒤 공동 5위였던 고진영은 마지막 날 순위가 밀렸지만, 상금과 평균 타수 부문 1위를 확정했다.

이로써 고진영은 세계 랭킹, 올해의 선수, 언니가 메이저 어워드, 상금,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 1위를 모두 휩쓸며 최고의 한 해를 완성했다.

이번 대회 사흘 내내 선두를 달린 김세영은 마지막 3개 홀 연속 버디를 잡으며 맹추격에 나선 헐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김세영이 17번 홀(파5) 약 5m 버디 퍼트를 놓쳤고, 헐은 18번 홀(파4) 버디를 잡아 17언더파로 공동 1위가 됐다.

마지막 18번 홀에서 김세영의 두 번째 샷이 홀 약 8m 정도 거리에 놓여 버디는 쉽지 않아 보였다.

연장전 기운이 짙어진 상황에서 김세영의 버디 퍼트는 홀 왼쪽을 향해 가다가 오른쪽으로 살짝 돌기 시작했고 극적으로 홀 안으로 떨어지면서 연장전 없이 김세영의 우승이 확정됐다.

김세영은 또 이 대회 우승으로 2014년 창설된 CME 글로벌 레이스에서 1위로 시즌을 마친 첫 한국 선수가 됐다.

이 대회 전까지 고진영이 CME 글로벌 레이스 1위를 달렸으나 올해 이 대회 우승자가 CME 글로벌 레이스 1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고진영은 이번 대회 공동 11위 상금 5만9360달러를 받아 시즌 상금 277만3894달러를 기록, 한국 선수로는 2009년 신지애, 2010년 최나연, 2012년과 2013년 박인비, 2017년 박성현에 이어 통산 6번째 LPGA 투어 상금왕에 올랐다.

또 평균 타수에서도 69.062타를 기록, 69.408타

의 김효주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여자골프 사상 세계 랭킹 1위 자격으로 한 시즌에 올해의 선수, 상금왕, 배트트로피를 휩쓴 선수는 2007년과 2008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2011년 쟈아니(대만), 2018년 에리아 주타누간(태국)에 이어 올해 고진영이 네 번째다.

여기에 2014년 창설된 언니가 메이저 어워드까지 석권한 선수는 지난해 주타누간과 올해 고진영 등 두 명뿐이다. /연말뉴스

## 아들 잃은 KIA 김민호 코치 아픔 함께한 KBO 시상식

한화 투수 김성훈 실족사...선수들 수상 소감 대신 애도·위로

"김민호 코치님께서 '너희들은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다. 말씀대로 코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선수들이 많다. 그걸 기억해주시면 좋겠다."

"또 다른 아들들이 아들을 가슴에 묻은 KIA 타 이거즈 김민호 코치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25일 진행된 KBO리그 시상식에서 KIA 박찬호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도루왕'으로 시상대에 오른 박찬호는 수상 소감을 말하며 김민호 코치의 이름을 꺼냈다.

김 코치는 지난 23일 한화에서 투수로 활약한 장남 김성훈을 실족사로 잃었다.

김성훈은 2017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2라운드로 한화 유니폼을 입으며 '야구인 2세'로 주목을 받은 선수다. 스타플레이어 출신의 아버지, 그래서 김성훈은 '김민호 코치의 아들'로 먼저 알려졌다.

잠재력과 성실함으로 기회를 노린 김성훈은 프로 2년 차였던 지난해 7월 22일 삼성전에서 선발로 프로 데뷔전을 펼쳤다. '김민호 코치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반대로 '김성훈의 아버지'로 바꾸겠다는 김성훈의 꿈이 시작된 날이었다.

김성훈은 데뷔전에서 승리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만 5.1이닝 2피안타 6탈삼진 1실점 역투로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올 시즌 첫 등판에서는 아버지의 팀 KIA를 만나, 선발로 마운드에 서며 주목을 받았다. 올 시즌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김성훈은 한화가 기대하는 '아기 독수리'였다. 그러나 누구보다 애뜻하게 아들을 응원하고 지켜봤던 김코치는 허망하게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했다.

이에 박찬호는 김 코치의 아들을 자처하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이날 평균자책점 1위로 트로피를 받은 양현종도 "여기서 이루지 못한 꿈 하늘나라에서 펼쳤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홈런상 주인공 박병호(키움)도 "야구 동료였던 김성훈 선수와 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고 수상 소감을 시작했다.

빈소를 찾아 아픔을 나눈 이들도 많았다. 각 팀 팬들이 조화를 보내 어린 선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한화 동료들은 지난 23일 구단 버스로 이동해 빈소를 지키고, 고인의 마지막길을 함께 했다.

KIA 선수들은 물론 롯데 민병현도 홀로 걸음을 해 김 코치를 위로했고, 해외에 있던 김재호도 급히 귀국해 자정이 넘는 시간 마지막 선수로 빈소를 찾



양현종

박찬호

았다. 눈물로 김재호를 맞은 김 코치는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겠지만 어떻게 흘러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성훈이와 작별한 시간이 다가온다"며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다가 "갑 갑이 먼데 빨리 일어나라"고 애제자를 걱정했다.

김 코치는 아들 같은 제자가 떠난 뒤에도 "성훈이랑 술 한잔하다가 옆에서 마지막으로 자야겠다"며 홀로 빈소에 앉아 잠만 못 들었을 뿐이었다.

어떤 말과 시간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빈자리지만 많은 선수가 '아들'이 되어 김 코치를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MVP 린드블럼·신인상 정우영

KBO 시상식...KIA 양현종 평균자책점 1위·박찬호 도루 1위

'20승 투수' 린드블럼(두산)과 불펜 에이스로 활약한 정우영(LG)이 2019 KBO리그 시상식 주인공이 됐다.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시상식이 25일 인 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열렸다.

MVP 트로피는 올 시즌 다승(20승)과 승률(0.870), 탈삼진(189개) 1위에 오른 '투수 3관왕' 린드블럼에게 돌아갔다.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언론사와 각 지역 언론사 취재기자 110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린드블럼은 880점 만점에 가장 많은 716점을 받았다.

타자 부문 3관왕(타율·장타율·출루율) 양의지(NC)가 352점으로 2위를 기록했고, 평균자책점 1위 양현종(KIA)이 295점으로 뒤를 이었다.

'고졸 투키' 정우영은 총점 550점 중 380점을 얻으면서, '늦깎이 신인' KIA 외야수 이창진(171점)과 투수 전상현(154점)을 따돌리고 신인상 주인공이 됐다.

KIA는 MVP와 신인상 수상자 배출에는 실패했지만, 4개의 개인 부문별 트로피를 수직했다. 극적인 반전쇼로 린드블럼의 4관왕을 저지한 '에

이스' 양현종이 평균자책점(2.29) 1위로 시상대에 올랐다.

양현종은 "이런 큰 자리에서 상을 받게 돼서 영광스럽다. 우리 팀이 많이 힘든 시즌을 보냈는데 박흥식 감독 체제로 잘 마무리해서 감사하다"며 "김기태 감독님과 이대진, 서재용 코치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한다. 가족들도 뒤에서 보살펴 주고 이끌어주시고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86.7%의 성공률을 보이며 39차례 베이스를 훔친 내야수 박찬호는 '도루왕'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박찬호는 "저 같은 선수가 이런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에 영광스럽고 감사드린다. KIA 구단, 코칭스태프, 팬분들, 우리 가족들한테 감사드린다. 과분했던 사랑을 받았고 기회를 받았다"며 "(내년 시즌) 개인적인 목표는 없다. 올해 실망하셨을 팬분들도 많을 것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시즌이었고, 내년에는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팀이 되는데 보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상무에서 복무 중인 좌완 김유신도 퓨처스 남부리그 다승(18승), 평균자책점(2.25) 부문에서 두 개의 트로피를 챙겼다. /김여울 기자 wool@